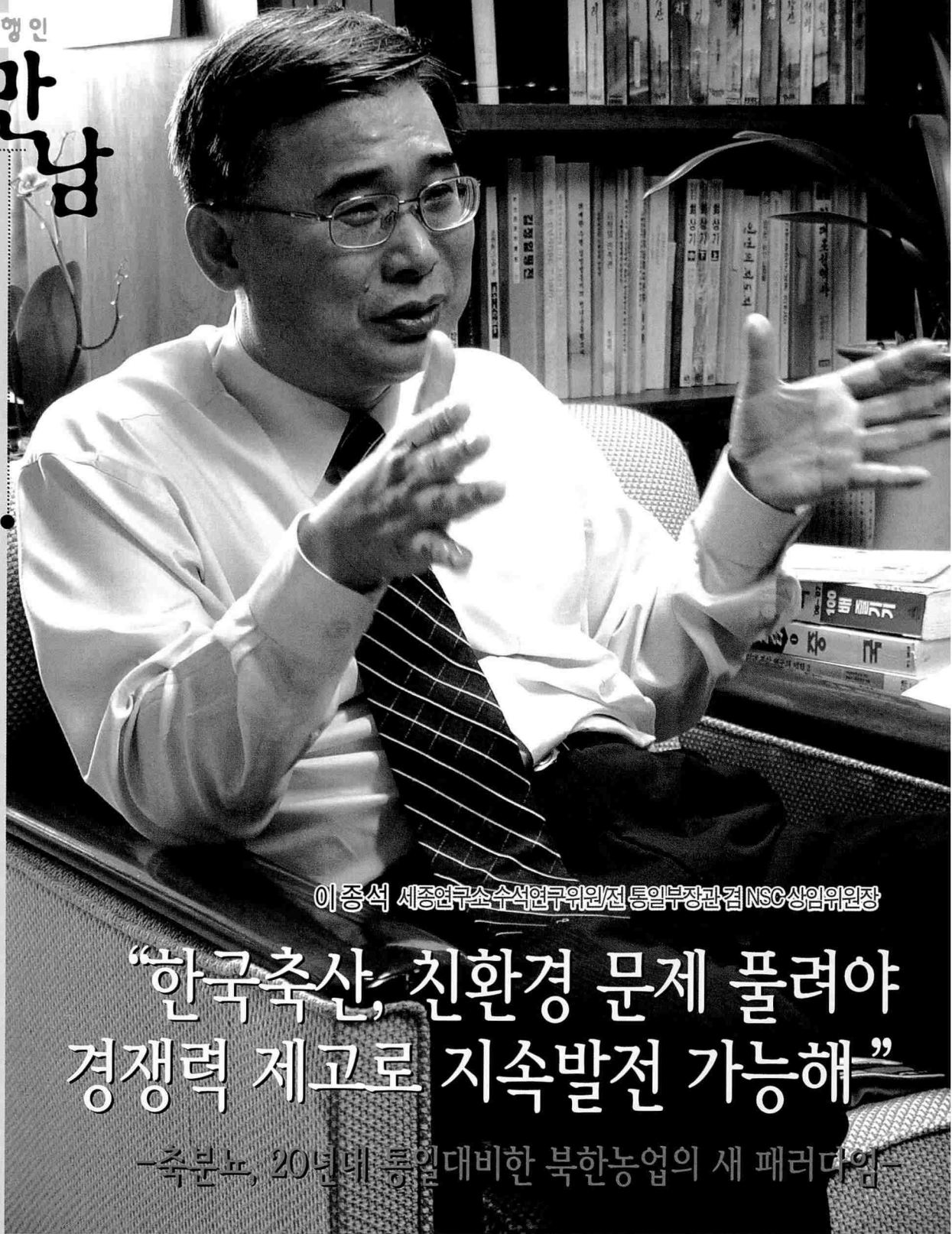


발행인

만남



이 증석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겸 NSC상임위원장

“한국축산, 친환경 문제 풀려야 경쟁력 제고로 지속발전 가능해”

-축분뇨, 20년째 통일대비한 북한농업의 새 패러다임-

>>> [대담 _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정리 _ 현시영 기자]

학력 및 경력

- 1984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 198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 1993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논문: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중심으로)
- 1996~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1997~ MBC 통일문제 자문위원
- 2000~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2001.5~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분과 정치행정 위원
- 2002~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장
- 20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
- 2003.3~200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 2006.2~2006.12 제32대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저서

-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 · 체제 · 지도자(1995)
-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1995)
- 분단시대의 통일학(1998)
-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2000)
- 북한-중국관계 1945~2000(2000) 등
- 논문 : 북한위기의 구조와 전망 등 다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2006~2006.12)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특별 수행원으로서 남·북 평화협력에 기여를 했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선두에 있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수장을 역임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한 ‘대북문제브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수석연구위원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답게 북한의 축산실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며 ‘북한 축분뇨 지원사업과 우리나라 축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로 본지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과 대담을 나누었다.

유동준 : 축산의 蓄(축)은 검은 현(玄) 아래 밭 전(田)자를 쓴다. 검은 밭이라는 것은 비옥한 땅을 의미한다. 이것은 순환농업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은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지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남아도는 축분뇨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종석 : 그러려면 퇴비화가 된 완전한 유기질 비료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축분뇨 자체를 북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북한의 도로사정 등 제반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이미 농지 대부분이 지력을 잃은 상태다. 화학비료의 사용보다는 유기질 비료의 사용으로 북한 지력의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시절 ‘유기질 비료를 북한에 주자’라는 생각으로 담당간부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북한이 난색을 표실했다. 아마 북한이 분뇨자체만으로 인식해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하지만 축분뇨에 톱밥을 섞어 발효시키면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톱밥생산성이 무궁무진하다. 삼림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에는 간벌한 나무가 널려져 있다. 이것을 톱밥으로 활용해



▲ 본지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

축분뇨의 퇴비화에 이용한다면 자원재활용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 그런 작업을 할 수 없다. 축분과 톱밥을 이용해 퇴비화가 된 비료라면 언젠가 북한이 받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축분뇨를 잘 활용하는게 축산업 발전을 위한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또한 축분뇨문제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유동준 : 아주 잘 봤다. 앞으로 우리 축산이 지속가능하려면 축분뇨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축분뇨지원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축산·사료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종석 : 지금은 현직에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수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일을 했다. 앞으로 20년 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모든 걸 바쳐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실제적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앞으로 연구하는 범위 안에 있는 문제다.

북한의 현재 농업인구는 전체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축분뇨 지원사업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축분보다는 조금 더 가공된 형태여야만 실제 북한에서의 활

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유동준 : 북한에서 어획된 모든 어류의 가공 부산물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축산에서 중요한 단백질 자원이 되는 어분으로 가공·사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가?

이종석 : 북한의 현재 어획량은 많지 않다. 통조림 같은 가공품도 별로 없다. 부산물이 남을만한 어획량이지만 어분으로 가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장과 수산관련회사가 같이 들어가야만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실정이 미비하다.

현재 정부는 남북수산협력을 중요과제로 보고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북측의 어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과 북측에 배 등 구체적 어획도구를 제공하고 어획량을 증대시켜 생산을 나누는 방법을 들 수가 있다.

북한의 동해 원산앞바다 쪽에 '은덕어장'이라고 있다. 남쪽 어부들이 와서 조업을 해도 된다고 했고 정부가 그걸 추진했다. 경상도 쪽 어

부들이 적극적이었지만 강원도에서 반대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금 그곳에는 중국 배들이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깝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동해바다에 충분한 어종이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가지는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유동준 : 98년인가 99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북에 염소를 보냈다. 북에서 사료 공급이 안될 것 같아 초식동물인 염소와 배합 사료를 같이 보낸 일이 있는데 북에 가축을 보낸 대북지원은 이때가 최초였다. 북한의 건초 사업은 어떤 수준인가?

이종석 : 북한은 '풀먹는 짐승기르기 운동'을 해 염소사육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에 협동농장이 있지만 거기서 소출이 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적으로 야산을 개간했다. 현재는 동네 뒤 야산까지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부 다 띄기밭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건초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풀을 벨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유동준 : 분노를 이용해 메탄가스와 같은 대체에너지 생산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겨울에 발효가 잘 안돼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메탄가스 생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종석 : 메탄가스를 만들 정도의 분노가 없다. 여러 방법으로 대체 에너지생산을 위한 노력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실현된 것은 없었다. 북한의 메탄가스 생산은 실제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문제가 생겨 생산은 어려울 것이다.

유동준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한다면

이종석 : 축산은 중요한 산업이다. 정책적으로 축분뇨를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환경은 오염될 것이다. 보다 더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이 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삼림 자원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데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자연순환농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유 회장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유동준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이 장관은 축산전문가 못지 않은 관심과 지식이 있는 분이시다. 오늘 인터뷰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㉟